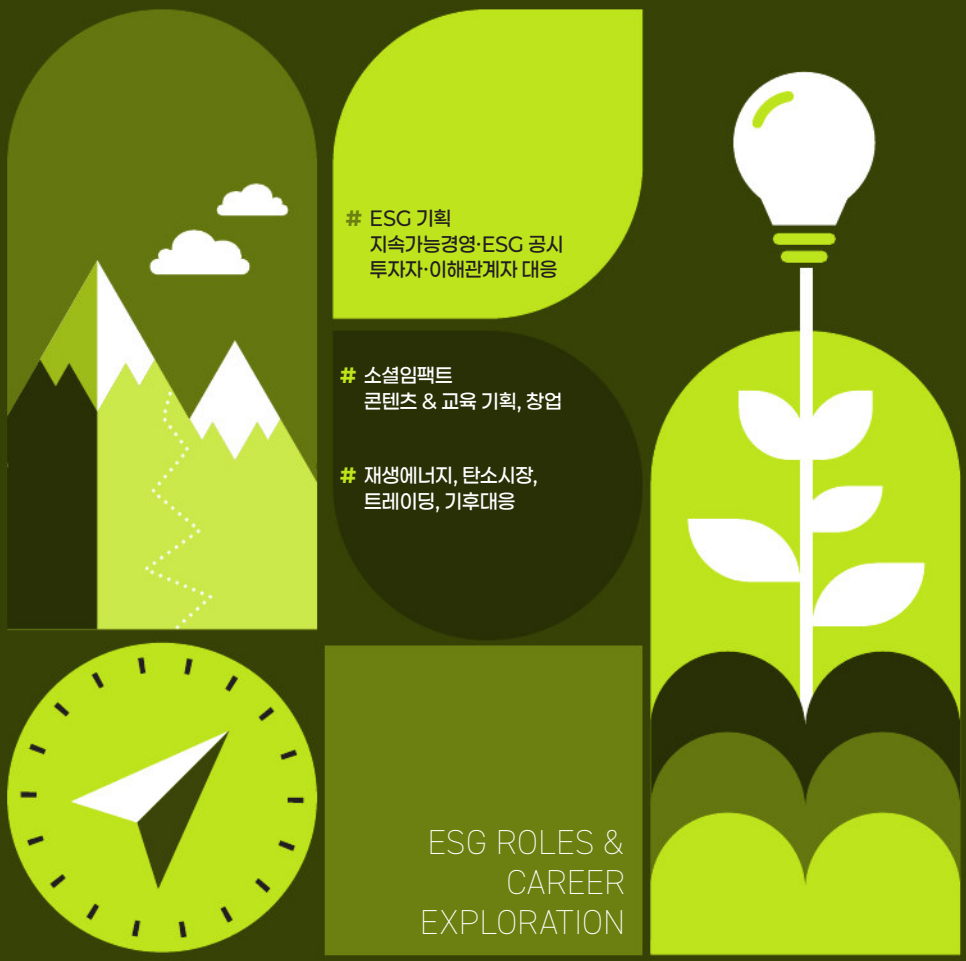
ESG 직무와 진로 탐색

17

이 장에서는 포스코홀딩스 ESG 사무국 담당자와 POSCO SEED 수료생들의 경험을 통해 ESG 관련 직무의 실제 업무와 진로 선택 과정을 살펴봅니다. 또한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과 대학생이 진로를 준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을 함께 소개합니다.



#진로 키워드:

ESG 기획, 지속가능경영·ESG 공시, 투자자·이해관계자 대응

양지원 포스코홀딩스 ESG사무국 차장

Q. ESG 담당자는 실제로 어떤 일을 하나요?

ESG 업무는 좁게 보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정도일 수 있지만, 넓게 보면 회사 업무 전반의 리스크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회사마다, 혹은 조직 내 부서의 위치나 여건에 따라 업무 범위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경우 지주회사 출범과 함께 ESG 팀이 신설되었고, 현재는 사장 직속 조직인 ESG 사무국으로서 그룹 전반의 ESG 리스크 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ESG 정책 수립부터 인권경영 운영, 보고서 발간, ESG평가 대응,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기후 공시 TF 운영, 이사회 보고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Q. ESG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요?

ESG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영역이기에, 단순히 이론적인 ESG 전문가가 되는 것보다 '우

그림 1 ___ ESG 부서 주요 업무



리 회사와 사업'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회사 내 안전, 탄소, 환경, 인사, 재무 등 어떤 분야든 결국 ESG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엑셀, 데이터 활용, 영어 역량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은 AI 활용에 익숙한 지금 세대라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영역이기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ESG가 특정 전공자나 인턴십 등의 경험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편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ESG 업무는 정해진 답을 수행하는 일이라기보다 변화하는 정보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일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런 성향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잘 맞을 수 있습니다.

Q. ESG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점과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가장 큰 어려움이 곧 가장 큰 보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ESG를 바라보는 인식과 현실의 차이를 내·외부에 설명하고 설득해 변화를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예를 들어 회사의 특정 이슈가 투자 제한 사유가 될 때, 이슈의 본질을 파악하고 글로벌 투자자와 평가기관의 논리를 이해해 대응해야 합니다. 회사가 개선해야 할 부분은 과제로 풀어가되, 언어 장벽이나 법규 차이로 인해 억울하게 오해받는 부분은 공식 문서를 통해 정중히 설명하고 설득합니다.

이 과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결과적으로 투자 제한이 해제되어 다시 투자 대상 기업이 될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ESG가 단순히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회사 경영과 재무에 직결되는 필수 요소임을 실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Q. ESG 업무에서는 여러 부서와 어떻게 협업하나요?

부서 간 협업은 ESG 업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포스코홀딩스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부터 협업에 기반하여 내부 역량으로 진행합니다. 각 부서의 현업 담당자를 'ESG 앰배서더'로 임명해 교육하고, 그들이 직접 공시 기준과 문항을 이해하며 부서별 원고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직원들의 업무 투입은 늘어나지만, 이를 통해 현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향후 ESG 공시 의무화가 본격화되면 실제 이행 내역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내부화 과정이 ESG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ESG 경영이나 직무에 대해 흔히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오해는 ESG를 여전히 CSR(사회공헌)과 혼용하거나, 회사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 혹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ESG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ESG는 회사 내 여러 부서의 업무 전반에 걸쳐 있으며, 동시에 신규 사업의 시작부터 운영, 철수까지 전 과정에 연결된 리스크 관리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사회공헌 내용은 ESG 공시에서 요구하는 핵심 정보가 아닙니다. 봉사활동 시간이나 기부금 액수는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역사회 공청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지, 원주민 지역에 적용되는 인권 정책과 고충 처리 채널이 있는지 등이 ESG 관점에서 요구되는 지역사회 관련 핵심 정보입니다.

Q. 앞으로 ESG 직무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공시 의무화에 따라 재무와의 연결고리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재무 부서나 재무 전공자가 함께할 영역이 넓어지는 셈인데, 단순히 기후 정보의 재무 영향을 산출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ESG가 깊숙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기후, 안전, 물, 인권 등의 이슈를 관리 비용과 연결해 재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ESG의 모든 업무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담당자가 이러한 역량을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ESG 조직 내에는 재무 역량을 가진 인력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ESG 전문가로 신입 입사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ESG를 잘 모른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막연히 ESG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기보다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내가 변화를 즐기는 사람인지를 더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ESG는 아름다운 동화가 아니고, 회사원의 삶 역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시도를 즐기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어야 일뿐 아니라 자신의 삶도 지속가능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ESG는 매일 새로운 과제나 변화가 생기는 역동적인 분야인 만큼, 변화를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ESG 분야의 인재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로 키워드:

소셜임팩트, 콘텐츠 & 교육 기획, 창업

강수지 우주먼지제작소 Orbit 대표

Q.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2022년 2학기 POSCO SEED 교과목을 수강한 서울여자대학교 졸업생 강수지입니다. 현재는 사회적 가치를 사람들의 일상과 문화로 연결하는 임팩트 기획사 '우주먼지제작소 Orbit'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한 지역축제와 전시, 박람회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활용 격차를 줄이고 누구나 자신의 업무에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마케팅 AI 서비스 'Morado'의 론칭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림 1 ___ 우주먼지제작소 주요 활동



Q. POSCO SEED 프로그램에 참여할 당시, 어떠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나요?

당시 엔투비로부터 '폐어구 자원순환 밸류체인 구축'이라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주제 자체를 이해하는 데에도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혼자 포항 구룡포까지 내려가 폐어구 수거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민들과 포항수협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경험이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전에 세웠던 가설들이 현장에서 거의 모두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책상 위에서 만든 가설만으로는 실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고, 문제를 직접 겪고 있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 어민들이 체감하는 주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폐어구 수매사업의 예산 부족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예산 편성의 주체인 지자체를 비롯해 어민, 기업, 지역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고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역축제와 연계해 폐어구 자원순환의 참여와 인지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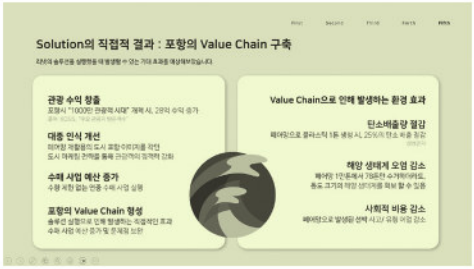
아인슈타인의 말로 알려진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1시간이라면 55분은 문제를 정의하는 데 쓰고, 5분은 해결책을 찾는 데 쓰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문제를 다시 정의하는 과정을 거치며 '문제 정의가 문제 해결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체감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선명해지자 필요한 해결책도 훨씬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Q. 이 프로그램이 진로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당시 저는 4학년 2학기였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학기에 이 수업을 들었는데, 오히

그림 2 ___ re:Net, We are Net in the ocean 발표자료





려 수업을 계기로 더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학교를 한 해 더 다니게 됐습니다.

원래도 제3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정기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만 좋은 의도로 만든 기술이라도 실제 현장에서 지속되지 못하면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POSCO SEED 교과목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지속될 수 있는 비즈니스와 사회적경제의 방식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후 추가 학기 동안 교내 소셜임팩트 관련 과목들을 찾아 수강하며 관심 분야를 더 깊이 공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의 회사도 창업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수업은 제가 사업의 방향을 정할 때 '이 일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놓치지 않게 해준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만드는 교육이나 행사, 새로운 서비스 역시 사회문제가 담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에서 경험하고 참여하는 문화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임팩트 문화 기획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창업 과정에서는 이 수업을 통해 인연을 맺은 엔투비와 서울여자대학교로부터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기회의 장을 마련해 준 포스코그룹에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POSCO SEED 교과목은 단순히 한 과목을 수강한 경험을 넘어,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저만의 방향을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Q. 지금의 일을 하며 가장 크게 배우신 점은 무엇인가요?

아마 많은 소셜벤처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바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함께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사업을 하면서 회사가 추구하는 철학과 현실적인 비즈니스의 요구가 충돌한다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前카카오 공동대표이자 현재 매거진 《B》 발행인인 조수용 디자이너와 커피챗을 통해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 저는 사회적 가치를 지속하려면 먼저 사업 자체가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가치와 매출을 서로 반대편에 놓고 선택하기보다,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는 비즈니스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철학에 공감하는 고객과 파트너를 조금씩 늘려 간다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방향은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가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동시 창출'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런 회사를 만들기 위해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Q. 후배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AI와 전문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AI 시대에 필요한 전문성이 무엇일까'를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전문성이 단순히 어떤 기술을 얼마나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I가 빠르게 발전할수록 오히려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정의하는 능력, 사람의 감정과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 윤리와 맥락을 판단하는 능력, 서로 다른 것을 창의적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POSCO SEED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을 관찰하고 이해관계자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만드는 과정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 과정 자체가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새로운 변화 앞에서 너무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만들고 문제의 본질을 찾아가는 힘은 여러분만의 전문성이 될 수 있습니다.

#진로 키워드:

재생에너지, 탄소시장, 트레이딩, 기후대응

이연제 CnerG 매니저

Q.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CnerG(씨너지)에서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와 탄소배출권의 Sales & Trading 업무를 맡고 있는 이연제입니다.

저는 2021년 2학기 한양대학교에서 'POSCO SEED' 교과목을 수강했고, 이후 포스텍 지속가능연구소에서 짧게 인턴으로 근무하며 "기업은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깊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기업의 재생에너지 및 탄소배출권 수요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제안하는 한편, 다양한 나라에서 공급자를 발굴하고 가격과 거래조건을 협상하는 등 거래의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POSCO SEED 프로그램에 참여할 당시, 어떠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나요?

저희 팀은 포스코1%나눔재단의 'Change My Town' 프로그램을 알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Change My Town은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개선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고 실행에 참여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의미 있는 활동임에도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 프로젝트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저는 재단과 관련 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취합하는 역할과 팀 발표를 담당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기업의 사회공헌이 단순히 기부금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활동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업이 가진 자원과 구성원의 참여가 결합하면 사회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구체적으로 경험했습니다.

Q. 이 프로그램이 진로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제가 하는 일이 학생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기업

의 재생에너지 전환과 탄소감축을 실제 거래를 통해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진로를 선택하게 된 데에는 이 수업의 영향이 컸습니다. 수업을 통해 환경이나 사회와 같은 큰 문제에서 기업이 매우 중요한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포스코그룹의 다양한 활동을 살펴보면서 기업이 보유한 자본과 기술, 사업의 규모가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그 경험이 제가 기업과 ESG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준 계기가 됐습니다.

한편 저는 원래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시장에서 필요한 것을 사고파는 일에도 흥미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향이 환경 분야에 대한 문제의식과 연결되면서, 기업의 기후행동을 실제 시장의 거래로 연결하는 일을 진로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수업에서 얻은 '기업은 사회문제 해결의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이 그 방향을 찾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어주었습니다.

Q. ESG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무엇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ESG에 대해 처음 알아볼 때는 크게 '기업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와 '어떤 기준과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먼저 기업의 실제 활동을 알고 싶다면 관심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읽어보세요. 특히 주요 제조기업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기후변화, 에너지, 공급망, 인권, 안전 등 각각의 영역에서 기업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무엇을 실행하



1. 말레이시아 Net Zero 컨퍼런스 참관 2. 재생에너지 전환: 기업 네트워킹 행사 주최 3. 대만 태양광 현장 실사

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읽을 때는 활동 사례만 보는 것보다 '현재 이행 상황 → 설정한 목표 →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 실제 성과'를 연결해서 살펴보면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요 이니셔티브와 프레임워크에서 발간하는 자료를 읽어보는 방법입니다. 환경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CDP에서 공개하는 기업 환경정보와 SBTi에서 제공하는 기후목표 관련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나 산업에 관심이 있다면 해당 산업이나 지역을 다룬 보고서를 함께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자료를 꾸준히 읽다 보면 현재 기업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과거 목표 대비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 앞으로 어떤 이슈가 새로운 어젠다로 부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후배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저 역시 이 수업을 듣고 ESG에 대한 작은 관심이 생겼고, 그 관심이 결국 지금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진로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에서 접한 한 가지 주제나 프로젝트에서 생긴 작은 궁금증이 이후 다른 수업, 인턴십, 연구, 취업으로 이어지면서 진로의 방향을 구체화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번 학기에 생긴 작은 관심 하나가 앞으로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관심이 가는 주제가 있다면 한 번 더 찾아보고, 사람을 만나면서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자신에게 잘 맞는 진로의 방향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